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중 의무헌금을 봉헌합니다. 헌금함에 넣지 않고 앞으로 나와 봉헌합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1월 수요일집회는 김재홍 목사가 에스겔서를 강의합니다.

한 해의 교회 재정을 확정하고 지방회 구역대표를 결정하는 구역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11일) 오전 9시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새해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7일(화) 오전 10시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부터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의 정원을 채워서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정선희 이광욱
1/15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정복순
오늘설거지봉사 :	이자애 김영아 전예원 이주율
다음 주 설거지 :	이윤석 박안수 정윤성 서효진
새 교 우 :	신현찬(5남) 김희선(5여) 이용현(청) 오보영(7여) 김성공(5남) 전혜민(7여) 노 용(5남) 정우선(청) 이윤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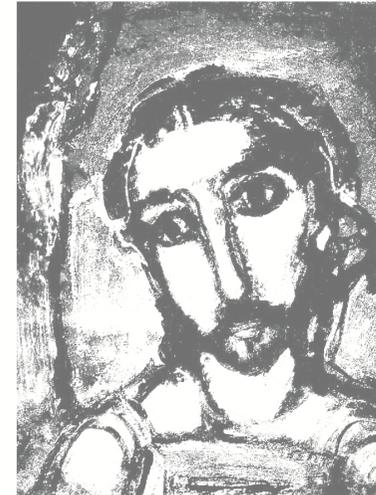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얀 눈발같이 깨끗하던 우리의 마음은 금세 일상의 발자국들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허리를 바로 펴고 고개를 반듯이 하고, 한 발 한 발을 정성스럽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폭력이 일상화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가진 작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 다른 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을 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무관심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곽새롬 김근종 정옥영 김민화 김수진B김정애B김종락 박영신
 권미정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이윤선 방극숙 최윤희 박찬덕 김지훈
 박숙영 오진훈 노순옥 이용규 노지현 정연희 조병익 조정연 한상경
 한상의 정영선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성공 전해민 김순복 문복순 최현선 박보배 배근수
 김금순 백성래 서원금 서정순 송동준 김진경 안종일 정현주 오보영
 손규현 오재은 윤성중 김윤정 이범석 류정욱 이지만 이현순 정수현
 조은상 김소영 채효준

녹색꿈헌금: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조항신 무명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쉽	쉽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소리의 뼈

기형도

김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군은 그것은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군은 그것은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치가 귀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돈의 힘을 맹신하며, 때로는 돈의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크게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에스겔서 / 김재홍 목사 기도 : 광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김태환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서정순 집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무가 보낸 편지

...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해 줄까? 유리나가빈이란 사람이 쓴 <겨울 떡갈나무>란 소설 이야기야.

어떤 한 마을에 안나 바실리에브나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부임한 지 이 년밖에 안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했지. 그러나 그녀에겐 골칫덩어리 학생이 한 명 있었어. 지각 단골생 서브시킨이라는 아이. 참다못한 그녀는 어느 날 서브시킨을 교무실로 불러 지각하는 이유를 물었어. 그러자 서브시킨이 대답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한 시간 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녀는 서브시킨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서브시킨의 하룻길을 함께 나섰다.

서브시킨은 학교 뒷문에서 시작되는 오솔길로 선생님을 안내했다. 그 오솔길은 주위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숲속이었어. 사람들 손길에 닿지 않는 그곳엔 새들이 재잘거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들판엔 토끼와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

서브시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안나 선생님은 숲의 고요 속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놀라움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대.

오솔길은 산사나무 주위를 휘돌며 이어져 있었고, 숲은 거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커다란 떡갈나무가 새하얀 옷을 입고 우뚝 서 있었어. 떡갈나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은 거울들로 반짝였는데, 그 맑은 거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그녀는 나무가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런 그녀에게 서브시킨은 나무 밑동을 파 고슴도치를 살짝 보여 주기도 하고, 또 작은 굴속에서 잠자는 개구리, 투구벌레, 도마뱀, 무당벌레 등을 보여 주기도 했어. 그러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지.

그제서야 그녀는 서브시킨에게 말했어.

“멋진 산책을 시켜 줘서 고맙구나.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통해 학교를 다녀도 좋아.”

서브시킨은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자연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들을 접했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한 사랑,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배웠을 거고. 아마도 안나 선생님은 그것이 학교 수업만큼이나 소중한다고 생각했기에 서브시킨에게 계속 그 길로 다녀도 좋다고 했겠지.

그런데 있잖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갑자기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려워졌어. 우리들에 관한 전설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나무와 떨어진 사람들, 한가롭게 나무와의 추억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하고 황량해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건 나뿐일까.

네게도 서브시킨처럼 나무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은 어느 순간 네가 각박해지고 메탈라 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될 테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전설들이 사라지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에도 새로운 전설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편지의 마지막을 부たく으로 끝내는 게 미안하지만 너는 그래도 나의 벗이라고 생각하기에 엄치 불구하고 얘기한다. 너도 알 거야. 서울의 창덕궁 후원 앞 플라타너스들에 아이들 이름이 적힌 명패가 하나씩 달려 있다는 걸 말이야. 적어도 그 나무들은 그 명패의 주인공에게만큼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살아가는 동안 그 나무와, 그 나무에게 자신의 이름을 준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둘만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지. 서로를 친구라고 여기면서.

나는 전설이라는 게 꼭 크고 거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늘 바라보며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언제부터인가 닫아 버린 마음의 문을 이제는 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처럼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를 보고 그저 한 번쯤 미소 지어 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